

# 페미니즘 인식의 변화에 따른 전경린 소설 연구

- 『천사는 여기 머문다』를 중심으로 -

심영덕\*

|| 차례 ||

- I. 들어가는 글
- II. 페미니즘 인식의 변화와 아장스망
- III. 분노와 혐오의 정체성 확인
- IV. 주류의 생성과 다중체 서사구조
- V. 나오는 글

## 【국문초록】

페미니즘이라 하면 오로지 여성 인권만을 다루는 것에 의미를 좁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별이 아닌 성의 평등이다. 그동안의 단답형 방식으로 미리 편을 가르던 소극적 구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가부장제의 관습에 젖어있던 사회가 지금보다 더 높고 넓게 행복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들뢰즈는 생성, 즉 있음에서 있음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배치로 자리잡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아장스망(agencement)을 통해서 이뤄진다. 창조가 무에서 유에로의 변화라면, 생성은 존재하는 각자의 객체들이 새롭게 재배치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조건은 있음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새롭게 변화된 것, 새로운 생성물을 들뢰즈는 multiplicity라고 정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중체 혹은 다양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전경린의 소설집 『천사는 여기 머문다』는 내용상 여성의 인권, 시대적 차별, 성의 형평성 등을 놓고 볼 때 페미니즘의 한 주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소설들의 전개과정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강’과 ‘꽃’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 경운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많다.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여러 흔적을 남긴다. 그 간격은 비록 이질적인 사건이라도 일정하게 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열되고 배치된다. 작중 인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강’과 ‘꽃’은 서사구조에서 단순한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인공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키면서 개체에게 ‘주름’을 만든다. 그것은 다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바라보는 사유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사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주름’에서 탄생한 ‘다중체’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밀어내면서 주변화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주제어 : 페미니즘, 들뢰즈, 아장스망, 주름, 다중체

## I. 들어가는 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그것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중요치 않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지는 개체군의 입장에서 각종 현상들이 한쪽으로 쏠림이 없이 균형있게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는 없다. 인류발달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그 두 개체가 충돌하거나 한쪽 편을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어쩌면 그것은 자연발생적이며 당위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달하면서 예기치 않게 화젯거리로 작용하는, 수많은 여성들이 처한 크고 작은 불평등과 관련된 페미니즘 현상도 그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페미니즘 인식의 혼란과 그것에서 발생하는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조화롭게 풀어낼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것에 비이성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워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존재해 달라

고, 혹은 언제나 최선의 선택이 되어주기를 맹목적으로 바랐을 지도 모른다. 그러는 사이에 이 운동은 평상시에는 숨어 있다가 예기치 못한 일로 큰 지지 기반을 갖거나 목소리가 크고 선동적인 인사들과 엮일 때에만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1960년대를 넘어서면서 범세계적으로 여성운동이 급속히 조직화되고 활성화 되었다. 여기에서 생겨난 용어가 ‘페미니스트’ 또는 ‘페미니즘’인데 이것은 여성운동의 목표를 새롭게 가늠하는 기준이 되었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힘입어 페미니즘 비평이 앞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법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에 대한 논의는 문학은 물론이고 사회학이나 매체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그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태이다.

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은 반드시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개개인의 삶의 모습에 따라 그 시기와 정도는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남자가 아닌 여성의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진다. 현대의 가정에서도 남자 형제에 비해 여자 형제가 차별받는 경우는 흔하다. 가정과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발을 내딛는 순간 여성의 굴레는 시작된다. 여성에 대한 사회의 편견은 넓고도 깊어서 사회구조적인 해결이 없이는 사라지기 힘들다.

문학의 경우, 한 단계 더 나아가 독자적인 방법론과 함께 다양한 방법의 담론으로 그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그런데 페미니즘은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2015년부터 한국에서 주요한 화두로 떠오른 ‘페미니즘’ 물결은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여성 혐오는 물론이고 소수자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등 미디어산업의 발달에 힘입어 각종 콘텐츠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줄을 이었다. ‘페미니즘 리부트’와 미투 운동을 거쳐 연말아 최대 규모의 여성 군중이 모였던 ‘혜화역 시위’가 정점을 찍으면서 페미니

즘 운동은 가히 ‘혁명’<sup>1)</sup>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될 만큼 규모가 달라졌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한국문학사의 명예로 간주되던 작가들의 이름이 행여 문학적 권위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돼 오던 가부장적 지배질서의 지표들의 타당성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sup>2)</sup>는 그래서 주목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의 경우 관습적으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한 또 다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특징도 있다. 최근 2년여 동안 페미니즘 관련 글을 <시사저널> 잡지에 연재<sup>3)</sup>하고 있는 노혜경의 “더불어 살아갈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삶 그 자체를 파괴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요구가 어찌 페미니스트들만의 일이겠는가”를 역설하는 그의 시선에 그래서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가장자리에서 맴돌았던 자유, 평등, 박애 또는 연대가 세상의 중심으로 옮겨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페미니즘을 국회도서관 자료검색(2020년 1월 기준)에서 단순히 그 자체만으로 검색해 보면 논문은 858편<sup>4)</sup>으로 나타난다. 한때는 언론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정작 이론 혹은 체계적인 연구로 거듭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아마 각종 잡지나 일간신문에 게재된 글을 포함한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간헐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을 비교하면 결과물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박사학위논문도 최근 것을 보면 4편<sup>5)</sup> 정도이며, 작가 또한 나혜석, 백신애, 강경애, 지하련 등 근

1) 「미투운동, 이제 ‘미투혁명’이다」, <여성신문>, 2018.3.15 참조.

2)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참조.

3) 그는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한다. 하나는, 일상을 바라보는 페미니스트의 눈을 소개하는 것, 다른 하나는 글을 통해 일상의 배후에 흐르는 정치적인 힘을 드러내고 변화시키는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다.

4) 검색어 기준-페미니즘 문학(49편), 페미니즘 소설(72편), 페미니즘 시(60편)

5) 이보라, 「선적 상상력을 매개로 한 서사창작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15.8.

대시기에 몰려 있다. 그나마 2015년도 김이듬<sup>6)</sup>이 ‘사랑의 실천과 여성해방’이라는 항목으로 고정희를, ‘상생과 탈경계적 모성성’으로 김혜순을, ‘자기 해체와 범우주적 여성성’으로 최승자를 분석한 것은 눈여겨 볼만 하다.

하지만 이 페미니즘에 대한 연구 풍토가 ‘뉘페니즘’<sup>7)</sup>에 묶여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나마 연구의 상당 부분은 그동안 남성 우위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왜곡된 정체성을 부여 받은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과거보다 개방성을 추구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주인공 스스로의 능동적인 판단이나 당당함으로 현실에 맞서는 여성을 그린<sup>8)</sup> 전경린의 소설이 페미니즘 변화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시대가 그만큼 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완결된 결과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페미니즘 운동과 관련하여 여론 변화와 특징적 요소를 트위터 데이터, 콘코 분석, 소셜 분석을 세부 항목으로 설정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 연구<sup>9)</sup>는 4차 산업혁명과 그 궤도를 맞춘 것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과거 여성 주인공이 당면한 답답한 현실을 ‘닭장’으로 보거나, 성추행이나 고독사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진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현실을 신비화했던 경우와는 달리, 조금은 각도를 달리해서 작가 전경린의 감춰졌던 욕망이나 의도

홍단비, 「한국 현대여성 소설의 치유 담론 연구」, 강원대 박사논문, 2014.2.

송현희, 「아동문학과 에코페미니즘」, 한남대박사논문, 2013.2.

김순례, 「근대 사회형성기 여성적 세계관의 변화 양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3.2.

6) 김이듬, 『한국 현대 페미니즘시 연구』, 국학자료원, 2015.

7) 국내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선장이 목적이 아닌 이것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페미니즘의 본질적 주장과는 상반되게 본인에게 유리한 입장만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함.

8) 나선혜, 「전경린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정체성 형성과정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p.85.

9) 강육건 외 2, 「국내 페미니즘 운동의 여론변화조사 및 특징적 요소분석」, 통계청논문 공모전 우수상, 2018.8.

를 파악한다는 것은 나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전경린의 소설이 프랑스 철학자 질 들뢰즈가 이야기 한 ‘아장스망’의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런 뜻에서 2장에서는 한국의 페미니즘 의식의 변화과정과 아장스망의 의미를 먼저 살핀다. 3장에서는 전경린의 소설 중 페미니즘 사회를 향한 응전방식으로 고착화된 분노와 혐오의 측면을 알아본다. 4장에서는 그의 소설들이 들뢰즈의 ‘주름’과 ‘다중체’로 명명되는 아장스망의 양상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 II. 페미니즘 인식의 변화와 아장스망

최근의 여성학자들은 사회가 발달하면서 여성의 역할과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많아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어쩌면 이것은 남성의 역할과 지위는 기존의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생각을 기초로 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엄마’ 역할과 위치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엄마는 자녀 양육은 물론이고 각종 가사일을 도맡아 하면서 오직 노동가치에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영미권의 자료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여성 관련 문학은 3가지로 분류시킨다. 페미니즘이 문화사의 한 획을 담당하기 이전까지의 문학인 여류문학, 생물학적으로 여성인 사람이 쓴 여성문학, 저자의 역할이나 성별이 어떠한 여성의 해방적 차원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해방문학 등이다. 또, 페미니스트의 문학은 고발 → 재해석 → 해방이라는 3단계를 거친다는 분석도 있다.

페미니즘 안에서 발생하는 논쟁들은 기존의 페미니즘이 생물학적 그리고 철학적 본질주의와 역사적 구체화에 대해 모더니즘 담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이는 ‘해체’와 ‘차이’에 대한 강조와, 단일한 인식론적 진실에 대한 도전은 페미니즘의 모더니스트 전통에 의해 주변화 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들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논쟁 안에서 구조주의자들은 제임스 조이스나 말라르메와 같이 모더니즘의 정수에 있는 작품들을 선호하는 것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여성의 예술, 문학 그리고 비평의 전반적인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이 두 개의 논쟁에 있어 페미니스트 비평가가 부재하였다고 보는 입장이다.<sup>10)</sup>

페미니즘이라 하면 오로지 여성 인권만을 다루는 것에 의미를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별이 아닌 성의 평등이다. 이런 고답적인 구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가부장제의 관습에 젖어있던 사회가 지금보다 더 높고 넓게 행복해지는 순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페미니즘 운동과 사상을 여러 갈래의 관점으로 나누고 있음을 볼 때<sup>11)</sup>, 페미니즘이 다루는 범위를 여성 인권 문제 등 어느 하나에 국한하여 말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의 페미니즘 비평은 사회적 성차별에 대한 비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었음은 관심을 조금 가지면 쉽게 알 수 있다. 몇 단계를 걸쳐 발전하였지만 거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다. 먼저 초기에는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성별에 대한 분위기의 실재성, 그리고

10) 김명혜 옮김,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한나래, 2003, pp.224-226.

11) 이것에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책은 2015년 9월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에서 발간한 『페미니즘의 개념들』이다. 그동안 화제가 되었거나 현재진행형의 키워드를 소개하던 가부장제, 매춘, 섹슈얼리티, 남녀동수법, 재생산, 재현, 젠더, 코라, 쿼어 등이다.

작가가 의도하는 기본적인 의도를 도외시한 채 획일적이고 보편적 가치만을 따르는 현상 등에 단순한 잣대를 맞추었을 뿐이다. 그나마 이런 혼란 속에서도 여성작가들이 쓴 문학작품을 해석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전통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군사정권이 막바지에 이른 1980년대에는 그 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들의 존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의 침예한 대립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위기감을 빌미로 하여 비민주적 통치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암흑기에 여류 작가군이 새로이 등장하여 자리를 잡게 된다. 당시 이들에게는 이전까지 문학에서 소재로 삼지 않았던 성 이데올로기라는 소재가 화두로 작용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성은 자본주의 생산구조의 일원이지만, 그 구조 안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여자는 소수에 불과할 뿐이다. 남자 국회의원, 남성 CEO 라는 말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여성 국회의원, 여성 장관, 여성 CEO 등 고위직에 오른 여성을 대상으로 부를 때는 직급 앞에 꼭 여성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여성이 그런 지위에 오르는 것은 각종 메스컴을 탈 만큼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관련시켜 볼 때 다분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작가의 시선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아직 제도화되기 이전의 개인들의 사랑의 상태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성을 보이잖아요. 제도화되기 이전의 자유로운 상태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물론 간통죄 자체가 없어지고 있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없어졌고,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없어질 단계고요. 그랬을 때 작가답게, 정말로 작가답게 제도를 지워버리고 인간의 운동성을 본다면, 결국은 정말 일대일, 개인간의 일인거죠 ..... 개인의 상처로, 개인의 상실로, 개인의 자유로,<sup>12)</sup>

12) 전경린, 「사랑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하여」, 문학동네, 2014, 가을호 대담



과연 ‘작가답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한창 왕성한 집필활동을 하면서 담담하게 써내려간 작가의 단상에서 수시로 강조되는 형용사의 반복은 결코 우연적으로 볼 수 없다. 그의 등단시절 억눌렸던 사회적 분위기가 거나 혹은 앞으로 지향하는 창작의도의 은유적 표현일 수도 있다. 과거의 상처와 상실은 미래를 지향하는 현재의 주인공들에게는 무의미한 사건이다.

이 소설집에 실린 9편 작품들은 제각기 다른 시공간을 소설적 무대로 삼고 개별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여성의 이야기를 9가지 방식으로 변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유 없는 사랑은 아프고 사랑 없는 자유는 공허하다. 이 악순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쉬운 길은 없다. 「맥도날드 펠랑콜리」가 여기에 해당된다. 주인공 나정은 남편과 헤어진 뒤 혼자 살고 있다. 나정의 유일한 즐거움은 일주일에 두어 번 맥도날드를 찾는 것이다. 그는 맥도날드 매장처럼 간결하고 효율적인 삶을 원한다. 그러나 “감정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부여하지도 않고 생산하지도 않고 전달하지도 않는” 맥도날드 매장은 세상의 바깥 벽 허공에 떠 있는 옥외계단 같은 곳이다. 그녀에게 희망이란 스스로를 호객하는 속임수일 뿐이다. 이처럼 동시대 여성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공감하게 그런 작품으로 볼 때 기존의 페미니즘 계열의 흐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야상록」의 금조나 「여름 휴가」의 묘정은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들에게 닥친 아픔의 파편들을 기꺼이 온 몸으로 수용한다. 작중화자의 행동과 언어는 작가의 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사회적 현실의 억눌림이나 부당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이전의 소설과는 다른 것이 여기에서는 많이 나타난다. 그만큼 작가의 생각이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이면에

는 자유의지가 깔려 있다. 비록 완전한 자유는 아닐지라도 왜 그 상처를 보듬어야 하고, 왜 그 상실을 이겨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충분히 추측이 가능해진다.

들뢰즈는 존재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일의적(univocal) 존재론을 주창한다. 이것은 존재가 복합적이 아닌 한 가지의 원리만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모든 것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그 하나를, 그는 ‘이데아/이념Idea’로서의 차이로 보았다. 차이라는 단어는 원리 하나에 기초하기에 이는 분명 일의적 존재론이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미분화 혹은 차이화하는 차이이다. 차이를 생성하는/(스스로를) 구별하는 차이이기 때문에 ‘일자는 다자와 동일’하다는 공식이 성립하게 된다. 다양한 차이를 의도하고 있는 하나의 존재가 어떤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연계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본성을 달리하기(차이화 하기) 하는데, 이것을 들뢰즈는 ‘다양체’라고 부른다.

이 부분에서 들뢰즈의 아장스망(agencement)이라는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자. 아장스망은 심려깊은 언어 유희를 수반한다. 아장제(agencer)는 배열하거나 서로 맞추는 일을 하며, 아장스망은 조립, 정리, 배열 또는 배치의 의미를 가진다.<sup>13)</sup> 이것을 근거로 할 때 작품 속의 ‘주인공’이나 ‘화자’는 인간의 몸체는 물론이고 설비, 기술 장치, 알고리즘 등으로 만들어진 포괄적인 개념이 된다.

소설집 속의「여름 휴가」의 묘정, 「강변 마을」의 소녀, 「야상록」의 금조는 이런 개념의 대표적인 전형이 될 수 있다. 이전의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물들이다. 작가는 사회가 바뀌고 있고 여성의 지위도 달라지고 있지만 21세기의 젊은 여성들도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숨기는 것으로 본다.

13) 홍성욱 엮음, 『인간 · 사물 · 동맹』, 도서출판 이음, 2010, p.158.

먼저 드러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여긴다면서도 여성이 더 능동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미 소극적으로 태세를 전환한 남성을 끌어당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복잡한 사유 체계를 가로지르는 이것은 다양한 이질적인 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차이 나는 본성들을 가로질러서 그것들 사이에 연결이나 관계를 구성하는 다중체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공생과 공감을 그 이면에 담고 있기에 들뢰즈는 이것을 ‘주름’을 형성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생성, 즉 있음(A)에서 있음(B)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배치로 자리잡게 되는데, 이것은 아장스망(agencement)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창조가 무에서 유에로의 변화라면, 생성은 존재하는 각자의 객체들이 새롭게 재배치되거나, 재구성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그 조건은 있음에서의 변화를 말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새롭게 변화된 것, 새로운 생성물을 들뢰즈는 multiplicity라고 정의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중체 혹은 다양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이 다중체는 들뢰즈 존재론의 핵심 개념으로 작용한다.

다양체란 부분들의 집합 혹은 접속이다. 들뢰즈는 이 말을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강도적 다양체와 외연적 다양체의 구별에 있다. 이는 또한 강도적 차이와 외연적 차이의 구별에 의존한다. 외연적 차이는 공간적으로 구별되고 경계 지어진 지점들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강도적 다양체는 동일화할 수 있는 척도로 이뤄진 다양체가 아니라 실체적 다양체이다. 무엇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접속들(혹은 다양체 되기)의 한 효과이다.<sup>14)</sup>

인간은 누구나 삶의 흔적을 스스로의 얼굴에 담는다. 나무가 살아온 여정이 나이테로 새겨지듯 인생살이에서 쌓여지는 시간들은 얼굴마다 다양

14) 한정현 옮김,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8, p.31.

하게 주름으로 남게 마련이다. 모든 지상의 만물들 또한 어떤 곳에서라도 시간의 주름을 차곡차곡 쌓는다. 이처럼 세상은 모든 사물들에게 싫든 좋은 스스로의 자국을 차곡차곡 새기게 된다.

들뢰즈는 이질적인 다양한 것으로 구성된 세상 각각의 개별자들이 나이, 성별, 신분, 환경 등의 마주침에서도 그 본질적 차이를 가로질러 그것들 사이에 연결이나, 관계를 구성하도록 공명, 공생, 공감하는 다중체(multiplicite)가 형성된다고 본다. 더불어 들뢰즈는 아장스망 그 자체를 또한 하나의 ‘다양체’로 보았다. 모든 차이들로 주름지어진 개체들은 항상 ‘분할 가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한 존재 역시 하나의 배치물(배치, 아장스망)인 셈이다.<sup>15)</sup>

누구나 새로 산 옷을 입게 되면 자신의 체형에 맞는, 자신만의 고유한 주름이 생기는 경험을 가진다. 사람의 만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변의 다른 사물들을 사용할 때도 사용자와 쓰임새에 따라 그 사용 흔적은 다르게 남는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다르게 남는 개별자들은 상호간의 적응으로 상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소통의 아장스망이다. 이 다중체, 다양체는 다자(多者)와 일자(一者) 사이의 어떤 조합이 목적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자 그 자체에 특별한 어떤 조직화를 가져야 한다.

작가는 그 조직화를 ‘사랑’에서 찾는다. 동시대의 다른 소설가들의 작품에 비해 그의 사랑에 대한 관심은 유별나다. "사람의 삶과 사회란 인공적인 문화이고 도식적인 제도이고, 일반화의 강요이고 단체로서의 경험이라면, 사랑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감각이고 무의식적인 에너지이며 개인적인 경험이고 고유한 삶의 추구"라는 견해<sup>16)</sup>에서도 잘 드러난다. 결국 작품 속에 나타나는 개인의 자아는 이 두 세계의 조직화 사이에서 흔들리며 자신을 지향해 감을 알 수 있다.

15)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p.439.

16) 정아람, 「여성들이 욕망에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2019.11.06).

모든 현상들의 기준이 빠름으로 판가름되는 현대는 구조적인 가속도의 발달로 인해 기술적·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조급증과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명예와 물질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 개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세상은 치열하게 양극화를 초래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질을 가진 자는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잉여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베르그손에 의하면 물질은 반복이다. 어떤 점에서 반복인가? 일차적으로는 수학적 법칙이 함축하듯이 결과가 원인에 비례하여 결정적이라는 점에서, 따라서 현재로부터 미래에 대한 정확한 계산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이후 것은 언제나 이전 것의 동일한 반복이라는 점에서 그렇다.<sup>17)</sup>

들뢰즈는 이런 물질과 반복의 의미를 사용해 인간의 사유를 ‘나무’와 ‘리좀’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한다.<sup>18)</sup> 먼저 나무의 경우 그 뿌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가지와 잎들이 앞서 미리 존재하는 절대적인 토대를 상징한다. 그리고 리좀은 뿌리를 의미하는 나무와는 전혀 다른 구조로 작동하는 것으로 본다. 땅 속에서 다른 줄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면서 온갖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전경린의 소설 속에 나타나는 개인의 자아는 사회의 조직화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그 흔들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향해 뻗어 감을 알 수 있다. 바로 그 종착점이 주름의 생성이며 이것이 다양체의 기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17) 반복은 해학과 반어에 속하는 사태이다. 반복은 본성상 위반이고 예외이다. 이처럼 반복에 대한 논의가 심화된 이후 들뢰즈는 반어를 이념-잠재적 층위의 반복 기법으로, 해학을 강도-개체적 층위의 반복 기법으로 정의한다.

김재희 지음,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p.299.

18) 강신주,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동녘, 2010, p.299.

### Ⅲ. 분노와 혐오의 정체성 확인

한국은 80년대 후반까지 남북이 대치상황이었다. 이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페미니즘 문학에 관심을 보이는 많은 여성 작가들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전히 사회의 중심은 남성이었고, 여성의 지위가 충분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풍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문단의 어두운 시기 속에서 꾀꾀하게 자신의 의지를 유지하면서 페미니즘의 선봉으로 평가받는 작가들로 권택영은 세 작가<sup>19)</sup>를 꼽는다. 이들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서사문학을 배경삼아 그동안 터부시하거나 소외영역으로 자리했던 여성을 문학의 전면에 배치시키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쇼왈터<sup>20)</sup>는『페미니스트 비평』에서 근본적으로 남성 지향적이기에 남성 비평가들의 성차별주의나 여성의 왜곡된 이미지를 연구하는 일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시각을 탐색하는 의미 없는 작업으로 간주하였다. 때문에 여성의 감정과 경험을 규명하기 위한 진정한 '여성중심비평'은 역사적, 인류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심리학적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그는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학의 정전과 걸작에 대해 근본적인 불신을 제기한다. 그리고 여성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남성지배문화에 대한 단순한 저항과 투쟁으로 파악하는 자세에서 진일보하여 여성의 고유한

19) \* 박완서 -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성차별 풍자. 희생적인 부덕의 강요와 남아 선호사상을 비판적으로 재현하고 여성의 자각을 암시. 리얼리즘으로 페미니즘 문학을 구현. \* 오정희 - 여성의 내적 시선을 통해 보는 미시적 접근으로 여성성 재현. 견고해 보이는 일 상 속에서 꿈틀대는 유동적인 삶의 실체와 모순을 내적 시점으로 서술. \* 강석경 - 일상으로 떠오르지 못하고 모호함과 부유하는 실체 속에 떠도는 여성성을 구현.

권택영, 「문학으로 돌아본 페미니즘」, <문학사상>(2019.4월), p.48.

20) 홍문표 옮김, 『페미니즘 비평』, 창조문화사, 2018, p.120.

체험과 그 기록을 '또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이 고유한 경험과 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새로운 비평의 장을 마련했다고 평가받는다.

최근의 '페미니즘 소설'들이 구현하는 미학과 정치학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강박'으로 읽어내는 비평은 가능하다.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요청이 최근 페미니즘 소설에서 읽어 내야 하는 전부인가, 왜 최근의 페미니즘 소설들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기율을 절대화하게 됐는가, 현재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명제가 갖는 정치적 가능성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심도 유보도 없이 주창되는 '페미니즘 소설 = 정치적 올바름에 구속된 작품 = 정체성 정치의 한계 노정'이라는 공식은 그저 페미니즘 자체를 '비문학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적대하려는 반동적 시도에 불과하다.<sup>21)</sup>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폭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의 흐름 아래 한국 문학을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새로 읽고 쓰는 속도가 빨라졌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내적으로 쌓여있던 여성 혐오와 분노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음을 뜻한다. 가장 끝에는 대중문화에서의 여성 혐오가 자리 잡고, 중간에는 여성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형태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이 나라의 입법자들이 있다.<sup>22)</sup> 결국 입법자들은 이 모든 여성 혐오가 활개 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경우 페미니즘의 부활은 여성혐오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21) 오혜진, 「'이야기꾼'의 젠더와 '페미니즘 리부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p.358.

22) 노지양 옮김, 『나쁜 페미니스트』, 사이행성, 2016, p.27.

혐오를 통해 개인 혹은 공동체의 경계를 공고히 하고 해체와 분열, 탈각 혹은 몰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고자 하는 충동을 가진 이들은 점액성, 악취, 짐착성, 불결함 등 혐오의 물질적인 속성들을 그 정체성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할 대상들에게 결부시켜 왔다. 특권층은 이를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명백하게 하고 ‘타자’ 들로부터 인간적 지위를 박탈하려고 했던 것이다.<sup>23)</sup>

소설「흰 깃털 하나 떠도네」에서 사회 부적응자 계영은 어린 시절 경험한 가족의 해체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늘 불안한 삶을 산다. 남편의 배신을 자식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어머니의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계영을 불안의 늪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방문을 단지 못하는 폐소공포증, 인적 없는 모퉁이를 돌 때면 작은 여자 아이가 서 있는 환상을 보는 모퉁이 공포증, 길에서 무심하게 움직인 어떤 동작이 신호가 되어 정체불명의 물체가 접근해 암호를 묻는 외계인공포증...(p.213)<sup>24)</sup>

그날 밤 계영은 납득할 수 없는 붕괴의 불안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밤 내내 자신의 몸이 갈매기에 파먹인 비둘기의 흰 깃털처럼 피를 묻힌 채 파도에 밀려다니는 꿈을 꾸었다.(p.233)

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재산 상속의 꿈이 어린 시절 만났던 친구에 의해 산산조각나면서 그 불안은 극에 달한다. 이 불안은「야상록」의 금조에게도 나타난다. 아버지를 제외한 어떤 남자와의 순탄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금조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신기루와 같을 뿐이었다. 눈 가까이 있는 듯해서 손을 뻗으면 그 실체는 몇 발짝 더 뒤에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린다.

23)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p.40.

24) 전경린, 『천사는 여기 머문다』, 문학동네, 2014. 이후 인용은 페이지만 표기함.



연못을 온통 뒤덮은 물질경이꽃은 흡사 무덤을 덮은 듯했다. 금조는 그 꽃 아래 물 속의 잠을 생각했다. 열흘 이상 불면 상태였다.(57)

잠 못 이룬 날이 오래 지속되면서 금조에게 이승과 저승의 구별은 별로 중요치 않다. 오히려 그는 사치로 생각한다. 그동안의 남자와의 만남은 온갖 상처로 각인되어 두려움으로 남을 뿐이었다. 꿈 속에서는 늘 검은 연꽃이 보이고, 농약냄새를 느끼면서도 한 남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불안으로 인해 들어오는 빛마저 그에게는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삶과 의식의 한계를 실감하며 작중의 여성들은 그 고통이나 분노를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과 환상의 길항관계에서 현실의 모순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부정성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현실 해체적인 힘을 스스로 내장<sup>25)</sup>하고 있기도 하다. 가장 보편적인 삶이란 끊임없이 재편되는 외부의 변화와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욕망을 아무런 충돌 없이 받아들이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이것에서 발생하는 분노는 단지 개인적인 인성의 문제로 접근하거나 그렇게 해소되는 감정이 아니다. 특히 사회적인 분노가 불의한 제도와 부당함에 대한 혐의라면 그것을 바로잡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이것은 복잡한 문제가 풀린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공식적인 이야기다.

분노란 자기 자신 혹은 자신과 가까운 누군가가 정당한 이유없이 무시당했다고 상상하고 이에 대한 복스를 상상할 때 발생하는 고통을 동반하는 욕망이다.<sup>26)</sup>

25) 윤애경, 「전경린 단편소설의 환상성 연구」, 『배달말』통권 56집, 배달말학회, 2015. 6, p.299.

26) 이종오 역,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HUEBOOKS, 2015, p.129.

사랑이 끝나기기도 전에, 자신을 책망하기 보다는 상대를 부정하는 행위가 가장 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작중화자는 본인을 버리고 떠난 누군가를 가슴에 새기며 단지 그리워할 뿐이다. 하지만 어떤 인간이라도 그 내면에는 분노가 없을 리 없다. 「여름 휴가」에서 묘정은 굴곡진 삶을 결코 피하지는 않는다. 현재를 과거로 만들거나 과거를 다시 입맛에 맞게 현실로 바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어긋났을까...삶이 주무르는 대로 머리를 들이밀고 호락호락 반죽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을 것이다. 삶에 대해 미리 상상하고 꿈꾸었던 것이 잘못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균열의 뿌리는 질기고 독하게 그들을 끌고 갔다.(p.244)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사랑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언제가 가장 용기를 내야 할 때인가. 이 단어는 관계의 시작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경우는 떠난 사람의 빈자리를 발견하고 그로 인해 좌절을 생각하는 때일 것이다. 분명 그 빈자리는 누군가의 떠남이 일어난 이후의 흔적이며 현상이기 때문이다. 분노에 대한 정의를 고려하면, 차별적 여성 혐오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에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분노가 들어 있다. 부당한 차별을 바로 잡으라는 젠더 정의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작용한다. 그 사랑의 요구를 작가는 꽃에서 찾는다.

나의 사랑이 내 속에 있으면 그냥 검고 작고 단단한 씨앗이지만 너에게로 갈 때, 활짝 꽃피어 빛과 향기를 품고 하나의 선명한 감각으로 당도하는 것이다. 너의 사랑도 것처럼 나에게로 올 때 우주의 홀을 통과하여 신성으로 당도한다. 그래서 타자라는 우회의 차원이 필요하다.<sup>27)</sup>

개인이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면 분리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자율

27) 전경린, 『사교성 없는 소립자들』, 섬앤섬, 2018, p.130.

적이지 못한 경우를 누구나 경험한다. 또한 타인과 정서적으로 함께하는 경험인 공감은 더 원시적인 양식으로 기능하거나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아울러 그 여자들은 사회적 조건들로부터 탈출해서 자신의 실존을 찾는 삶의 고달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녀들은 그 고달픔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잘 알고 있다. 어쩌면 삶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인물일 수도 있다.

「강변 마을」에서 소녀는 금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여자로 성장한다. 그 대상은 강물과 외삼촌이다. 죽음의 의식으로 연결되는 강물을 건널 때 외삼촌과의 아찔한 접촉에서 소녀는 내재된 욕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느끼게 된다.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는 더 강했지요. 난 좌절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좌절이란 내가 태어난 섬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했어요. 섬이란 불행의 가능성조차 없는 적막한 곳이지요. 때로 끔찍하게 불행했지만 좌절할 적은 없었어요. 난 바다가 정말 싫증났고 역겨웠거든요. 그에 비하면 불행은 적어도 맹렬하게 살아 있게 해요.(P.117)

문화가 시대를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정체성’이란 알게 모르게 인간의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었다. 하지만 2020년대를 살아가는 시점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공백으로 인해 생긴 정체성의 균열은 점점 더 심해진 상태다. 게다가 기댈 수 있는 공고한 공동체 감각마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서 발생한 혐오란 분단 시대의 반공주의나 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가 등장한 것과 같은 맥락일 수 있다. 따라서 첨예한 적대의 감정이 제거된 시대에 어떤 총체적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나름의 설득력을 갖는다.

들뢰즈가 이야기한 다양한 장치로 결합되어 일체를 이룬 상태를 아장스

망이라 한다면 작가가 소설 속 여성 화자로 바라보는 세계는 이런 점에서 상호적이다. 이제 그녀들은 안다. ‘짐승처럼 천진스러웠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는 것을, 온몸을 휘감는 열정의 시간이 또한 추락의 시간이기도 했다는 것을, 고통스러운 결혼생활의 상징인 반지가 빛방울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다양한 사물의 마주침이 있지만 그 각각의 단어들은 개별이 아닌 작가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배열되고 합성된다. 소설 곳곳에 나타나는 분노와 불안은 작품 속에서 그 자체로 존재하기 보다는 후반부에서 서로 새로운 결합 즉 다중체로 작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호적 관계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상호성은 “각자가 상대방에 의해 소유 및 향유되고 수혜되는 것, 호혜적인 또는 서로 상대에 대해 친밀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감정을 지니는 것”이라고 한다. 상호적 교환에서 개인은 상대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또한 상대에게까지 확장시키고 타인의 영향력을 받아들인다.

전경린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오히려 생활 세계를 박차고 비상함으로써 존재의 기쁨을 찾는, 엄연한 의미에서의 일상초월적인 인물들이다. 이들이 탐하는 생의 의미란 존재의 불가의성, 만남과 이별의 불가피한 순환 등의 다분히 이데아적인 것이다.....자기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생의 관습적인 고리를 끊기 위해 필사적으로 가출과 탈주를 감행한다.<sup>28)</sup>

그런데 자존감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자기에 성향의 사람은 상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sup>29)</sup> 견해도 있다. 왜냐하면 타인은 그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전체적인 대상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28) 백지연,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비평사, 2001, pp.137-138.

29) 홍상희 외 1 옮김, 『‘여성’의 자아』관계-속-자아, 한울, 2018, p128.

자기애적 관계의 목표는 타인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족적이고 보호받는 과장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 IV. 주름의 생성과 다중체 서사구조

힐러스 밀러가 거론한 반복의 양상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한 작가가 다른 작품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반복의 양상이다. 그 반복은 동일한 대상의 반복일 수도 있고, 동일하지는 않지만 어떤 유사한 대상의 반복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반복에 나타나는 유사성의 정도가 아니라, 그 반복되는 대상들이 텍스트 사이로 떠돌아다니면서 의미있는 차이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들뢰즈의 논법을 빌리면 개념의 차원으로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시물라크르의 차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그렇다면 페미니즘을 지향한 문학 속에서는 반복은 어떤 양상을 보일까. 언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 동일한 것 같지만 작가의 수사법과 연관된 반복에 의해 그 상태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사랑, 증오 그리고 영혼을 혼드는 수천 개의 감정들이 상당수는 객관적이지만 더러는 주관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소설가는 다수의 세부들을 병렬함으로써 감정과 관념들에 그들의 원시적이고 살아있는 개성을 되돌려”<sup>31)</sup>주려고 애쓰는데 일반 독자는 그 감정과 관념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문학 속의 행위자 즉 주인공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인간 고유의 개성으로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인간 본연의 당위성을 획득하게 된다. 바로 이 개성과 당위성이 들뢰즈-가타리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다. 그동안

30) 손정수, 『텍스트와 콘텍스트, 혹은 한국 소설의 현상과 맥락』, 자음과 모음, 2016. p.110.

31) 최 화 옮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대한 시론』, 아카넷, 2003, p.208.

‘정념’과 ‘귀기’라는 강렬한 단어들로 설명되어온 전경린의 소설들은, 이제 우리의 내면에 잠재한 고통과 거칠고 낮은 시선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특유의 시정(詩情)적인 문체와 세밀한 묘사를 통해 표현되는 것은 뜨겁게 타오르는 사랑의 불꽃이기도 하고, 전략을 향해 달려가는 무거운 현실이기도 하다.

결국 이 개성과 당위성은 서로 다른 요소들의 ‘배열’ 혹은 ‘동행’ 이라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마주침을 거듭하게 된다.

‘배치’ 개념은 행위능력을 모든 행위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 겸 선행조건이 되는 사물들의 동행과 관련을 시킨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행위든 비인간의 행위든 관계없이 행위하는 모든 실체들을 지칭할 수 있으며 행위자 개념이 흔히 초래하는 오해를 불식시켜 주는 것이다.<sup>32)</sup>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신의 본래 성질이나 복수의 아장스망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원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집단적이든 개인적이든 그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일정한 패턴으로 마주침으로서 작가의 특징을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전경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의 소설집 『천사는 여기 머문다』는 내용상 여성의 인권, 시대적 차별, 성의 형평성 등을 놓고 볼 때 페미니즘의 한 주류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소설들의 전개과정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강’과 ‘꽃’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작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여러 흔적을 남기지만 그 간격은 비록 이질적인 사건이라도 일정하게 타자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열되고 배치된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은 그동안 겪었던 인고의 시간에서 탈피해 스스로 정당한 주체적인 인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2) 홍성욱 엮음, 같은 책, p.327.

전경린의 소설은 자신의 몸에 각인된 식민성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을 남성 중심적 구조 전반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소설에 나타난 여성 주체의 성장은 주변부적인 타자의 위치에서 변혁의 주체로 나아가는 성적·사회적 탈식민화의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sup>33)</sup>는 점에서 탈식민적 접근의 당위를 지닌다.

소설「맥도날드 멜랑콜리아」는 고독사나 성추행 등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이로 인해 같은 시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자신과의 동일시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과거에는 잃어버렸던 욕망을 찾아 집을 나와 방황하지만, 현재는 자신에게 환멸을 보내거나 자책하면서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정은 꿈이라는 단어에 염증이 나 가슴속에서 비명이 올라왔다. 비명은 꿈이라는 단어에 특히 예민했다. 꿈이란, 자신에 대한 호객행위이고 삶에 대한 강박일 뿐이었다. 그에게 차라리 꿈이 없다면 훨씬 건강해 보일 것 같았다.(p.26)

상실한 사람은 더 안으로 파고들 뿐 나오지 않는다. 점점 더 완고하고 완강해져서 시간의 흐름에조차 무관심해지고 자신과 타인에게도 무감각해진다. 잊지 못하는 여자가 있다고 굳이 말로 하는 남자는, 비겁한 부류이다. 나정은 그런 말을 결코 입 밖에 내지 않는다.(p.30)

작은 욕심도 부리지 않고, 아무 것도 소유하는 것 없이 살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볼 때 다분히 디스토피아적이다.

빛줄기 사이로 간밤의 메마른 꿈이 흘러갔다. 그리고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치 사진관에서 찍힌 증명사진처럼 삶이라는 배경을 무화시키며

33) 박선화, 「전경린의 여성 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p.23.

떠오르는 선명한 얼굴, 친숙하지만 다가갈 수 없고 이제 곧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얼굴이었다.(p.37)

현실을 신비화했던 과거와는 다르다. 사진이라면 과거의 사건이나 일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장치지만 그녀에게는 무용지물이다. 단지 꿈은 흘러가는 무형의 사건이며, 얼굴은 지금 그대로의 단순한 흔적에 불과할 뿐이다. “흐린 날씨였다”로 시작하는 소설의 첫 문장을 참고한다면 한 남자의 얼굴이 두려움과 흔들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작가의 또 다른 합성일 수 있음이다.

「강변마을」에서 강은 긴 척추를 휘며 근육이 단단한 물결로 내 몸을 밀기도 하고 감기도 하고 혹은 누르기도 하며 점점 깊은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그러는 가운데 물고기를 만나고 수초를 만나면서 나의 아픈 기억은 치유된다. 기억은 하나의 매듭으로 남지 않으면 추억이 된다. 그러나 작가가 바라보는 꽃의 상징은 일상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사소한듯하지만 유별나다.

꽃을 꺾어본 사람이야말로 꽃나무를 정말 사랑하게 된다. 그 순간에 꽃이 자기 생애로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에 꽃을 꽂으면 신도 기뻐하신다. 꽃으로 푸자를 하고 물 위에도 길에도 꽃이 덮이는 나라들처럼 신의 이름으로라도 꽃이 좀 더 낭비가 되는 세상이면 좋겠다.<sup>34)</sup>

「여름 휴가」에서 묘정은 남편과 헤어진 후 동피랑을 찾는다. 그녀에게 정이 없는 부부와의 인연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고 현실은 녹록치 않다. 어려운 갈등의 순간마다 꽃을 보면서 위안을 받는다. 이것은「야상록」의 ‘물결경이꽃’으로 잠 못 이룬 날을 위로받는 금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4) 전경린, 『붉은 리본』, (주)웅진씽크빅, 2006, p.125.



회랑 걸 야생정원에 개망초꽃이 새벽 같은 부연 밝음 속에서 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p.247)

이슬이 맺히는 축축한 공기 속에 찢레꽃 내음이 새하얀 망사 너울처럼 얽혀 있었다.(p.249)

작가는 이름 붙여진 꽃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의 관심은 천지간에 나와 앉아 이토록 척박하고 가난한 이름들을 갖게 된 들꽃도 예외는 아니다. 도대체 얼마나 혹독한 사랑을 치렀기에 기꺼이 감수하고 지내는 것일까. 나는 또 어떤 이름의 들꽃이 되려고 이렇게도 뒤채이는 것일까.<sup>35)</sup>

「천사는 여기 머문다1」에서 유부남과 살고 있는 나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다. 하지만 불같은 분노와 진눈깨비 같은 망설임과 생수 같은 눈물, 사라져간 사람들 속의 무수히 변하는 표정 등을 보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먼 나라에 있어야 하는 꽃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는다.

“릴리구라스” 그것은 히말라야 아래에 있는 먼 나라의 꽃이다. 그 나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p104)

「천사는 여기 머문다 2」에서도 꽃은 서사구조에서 전략적으로 사용된다. 주인공은 전남편과 삼 년을 산후에 친정으로 돌아와 이혼하는 데 다시 이 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혼 사유는 피로였다. 그 피로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과는 달리 꽃을 보면서 그녀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만남을 준비하는 이율배반의 행동을 한다.

---

35) 전경린, 『나비』, 늘푸른소나무, 2006, p.94.

길가엔 분홍빛 들장미가 피어 있어 코티 분 냄새가 바람 속에 떠돌았다. 해바라기와 제라늄, 협죽도와 장미, 망초꽃과 병꽃과 백합, 달리아와 무궁화같이 흔한 꽃들로부터 처음 보는 커다란 보라색 꽃들까지(p154)

작중 인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강’과 ‘꽃’은 서사구조에서 단순한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주인공의 삶의 질서를 변화시키면서 개체에게 ‘주름’을 만든다. 그것은 다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바라보는 사유방식이 어떠하냐에 따라 사건은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주름’에서 탄생한 ‘다중체’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밀어내면서 주변화하고 소외시키는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즉 자아를 껴안고 있는 세계가 단순하게 한 존재로 창조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無)에서 만들어진 유(有)가 아닌, 홀로 자립하는 것이 아닌 여러 인식의 재배치로 인하여 생성된 ‘다중체’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려는 이론적, 실천적 입장을 의미하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이전에도 유사한 형태로 일어났던 일일 수 있다. 그러나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페미니즘의 물결은 침묵하지 않고 그녀들의 언어로 이 사건들이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차별적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떠들고, 설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sup>36)</sup> 그러나 여성을 대할 때 어떤 경우가 차별에 해당되고, 그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했으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사실 과학사적 연구에 따르면이라도 인간을 성을 기준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구별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36) 조혜영, 「상호매개적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6 가을.

르네상스나 17세기까지만 해도 인간에 대한 해부도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단 성 모델에 따라 그려졌다. 이에 반해 인간에 대한 해부도가 여성과 남성을 구별한 양성 모델에 따라 그려진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며, 19세기 시민혁명 이후 남녀간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연과학적 성차 개념이 객관적이고 불변적인 진리가 되었다는 것이다.<sup>37)</sup>

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실존적 인간으로서의 의미찾기다. 따라서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개성이 중요하지, 성별은 더 이상 절대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동안 포스트 페미니즘은 주체의 탈중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탈정치화 되고 순치되었다. 페미니즘의 정치성은 상실되고 실천운동으로서의 역할은 퇴색되었다. 흥미롭게도 여성 주체의 종언에 반발하여 강력한 여성 주체의 재등장을 원하는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sup>38)</sup> 그런 흐름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 V. 나오는 글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의 전유물이자 남성을 공격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좁은 시각임을 알 수 있다. 페미니즘이 서양에서 처음 탄생하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쉽게 드러난다. 서구에서 처음 페미니즘이 탄생한 것은 당시의 주류 계층이었다.

따라서 단순히 ‘여성작가가 쓴 문학’, ‘여성을 소재로 한 문학’, 이와 관

37)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엮음,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 책, 2016, p.52.

38)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 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연, 2016, p.12.

련한 연구들이라고 페미니즘을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과거 모더니즘의 계승으로 보는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페미니즘은 오히려 반모더니즘적 성향에 가깝다는 점에서 여러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성도 동시에 갖는다.

본고에서 살펴 본 한 권의 소설집으로 전경린 소설이 가지고 있는 페미니즘 인식의 전환을 하나의 명제로 재단할 수는 없다. 예술작품은 감정의 초월적 실행을 위한 실험으로서 감상자를 실재적 경험으로, 다시 말해 감각의 발생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한다. 그런데 ‘예술은 곧 실험’이라는 명제에서 실험이라는 용어는 들뢰즈 사상의 전개과정 속에서 상당한 의미변화를 겪는다<sup>39)</sup>는 측면에서 그의 아장스망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작가가 소설에서 선택한 이야기들의 화소들이 여성들의 고난과 역울함을 다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페미니즘 계열로 묶어서 평가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는 다양한 연구 방법이 뒤따라야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흔히 수사법상 사사구조에서 반대되는 것을 내세워 작가의 생각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들뢰즈가 말하는 배열과, 배치는 단순한 나열이 기보다는 새로운 합성으로 이어지면서 나뉘는 의미망을 구축하는 장치이다. 전경린의 소설에 나오는 다수의 여성들이 결혼에 실패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받으며 굴곡진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그동안의 방법처럼 부정적인 인물로 획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일 것이다. 따라서 들뢰즈의 주장처럼 어떤 흔적으로 나타나 어떤 주름으로 잡히는지를 다양한 시선으로 작품들을 봐야 할 필요성도 함께 생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여성들은 많은 것들과 싸워야 한다. 사회는 여성에게 자본을 생산해내는 주체로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아내와 어

39) 성기현, 「질 들뢰즈의 감각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7.8, p.9.

머니로서의 역할에 어긋남이 없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법적 경제적으로 여성은 여전히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고, 가사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며, 보육 정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분명 변화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변화하지 않으려 한다. 사회의 기득권을 충실히 움켜진 손은 쉽게 그것을 놓으려 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다. 사회와 인간 문제의 해결 없이는 여성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제 페미니즘은 이런 모든 문제에 종합적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 이것은 탄생부터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들이 여성이라는 이름의 영역에서 불려지는 집단들이 겪는 문제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뜻한다.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의 글쓰기를 시작한 이래 탄생한 많은 페미니즘 문학의 공통점은 세상을 '남성 대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 따라 나누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남성은 가해자이고, 여성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을 은연중 고착화시키는 일방적 형식을 취해 왔다는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은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하고 의식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도 가능하다. 그러나 페미니즘 문학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들만의 문학을 넘어서 문학의 기능이나 효과 그 자체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되는 속성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 페미니즘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용적 측면은 물론이고 형식적 측면에서의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사)여성문화이론연구소 지음, 『페미니즘의 개념들』, 도서출판 동녘, 2015.
- 「미투운동, 이제 '미투혁명'이다」, 여성신문, 2018.3.15.
- 〈시사저널〉통권 1504호, 1518호, 1540호, 1554호, 1559호.
- 강신주,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동녘, 2010.
- 강우건 외 2, 「국내 페미니즘 운동의 여론변화조사 및 특징적 요소분석」, 통계청논문 공모전 우수상, 2018.8.
- 권택영, 「문학으로 돌아본 페미니즘」, 문학사상, 2019.4월.
- 김명혜 옮김, 『포스트페미니즘과 문화이론』, 한나래, 2013.
- 김상환 옮김,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 김순례, 「근대 사회형성기 여성적 세계관의 변화 양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13.2.
- 김이듬, 『한국 현대 페미니즘시 연구』, 국학자료원, 2015.
- 김재희 지음, 『베르그손의 잠재적 무의식』, 그린비, 2010.
- 나선혜, 「전경린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정체성 형성과정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제6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pp. 77-97.
- 노지양 옮김, 『나쁜 페미니스트』, 사이행성, 2016.
- 박선화, 「전경린의 여성 성장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9.
- 백지연, 『미로 속을 질주하는 문학』, 창작과비평사, 2001.
- 성기현, 「질 들뢰즈의 감각론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7.8.
- 손정수, 『텍스트와 콘텍스트, 혹은 한국 소설의 현상과 맥락』, 자음과 모음, 2016.
- 손희정, 『페미니즘 리부트』, 나무연필, 2017.
- 송현희, 「아동문학과 에코페미니즘」, 한남대 박사논문, 2013.2.
-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정신분석 세미나팀, 『페미니스트 정신분석이론가들』, 여이언, 2016.
- 연구모임 사회비판과 대안 엮음,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사월의 책, 2016.
- 오혜진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 윤애경, 「전경린 단편소설의 환상성 연구」, 『배달말』통권 56호, 배달말학회, 2015.6. pp. 289-310.
- 이보라, 「선적 상상력을 매개로 한 서사창작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15.8.

- 이종오 역,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UEBOOKS, 2015.
- 전경린, 「사랑이라 부르는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하여」, 문학동네, 2014 가을호.
- \_\_\_\_\_, 『나비』, 늘푸른소나무, 2006.
- \_\_\_\_\_, 『붉은 리본』, (주)웅진씽크빅, 2006.
- \_\_\_\_\_, 『사교성 없는 소립자들』, 섬앤섬, 2018.
- \_\_\_\_\_, 『천사는 여기 머문다』, 문학동네, 2014.
- 정아람, 「여성들이 욕망에 능동적일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2019.11.06.
- 조혜영, 「상호매개적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6 가을.
- 최 화 옮김,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대한 시론』, 아카넷, 2003.
- 한정현 옮김, 『들뢰즈 이해하기』, 그린비, 2008.
- 허수경,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문학과지성사, 2016.
- 홍단비, 「한국 현대여성 소설의 치유 담론 연구」, 강원대 박사논문, 2014.2.
- 홍문표 옮김, 『패미니즘 비평』, 창조문화사, 2018.
- 홍상희 외 1 옮김, 『여성'의 자아』 관계-속-자아, 한울, 2018.
- 홍성욱 엮음, 『인간 사물. 동맹』, 도서출판 이음. 2010.

Abstract

A Study of kyung-rin Chun's novel based on the change of feminism  
perception

Shim, Young-deuk

Feminism often narrows the meaning to dealing solely with human rights. But what feminism really wants is gender equality, not distinction between femininity and masculinity. If this distinction of short answer disappears, it will be a moment when the society immersed in the patriarchal custom becomes higher and wider than it is now.

Deleuze sees the transition from creation, from yes to being, into a new arrangement. This is done through agencement. If creation is a change from nothing to euro, creation means that each individual object that exists is changed to another by relocating or reconstructing. The condition is a change in presence. Through this process, new changes, new products, Deleuze defines multiplicity, which in some cases may be translated as multiplex or manifold.

It is true that, in the context of kyung-rin Chun's collection of novels, "Angel stays," it is a mainstream feminism in view of women's human rights, age discrimination, and gender equity. Howeve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novels contained here, clues to the solution of events are often made in 'rivers' and 'flowers'. The artist unfolds events and leaves traces in her own way. The gaps are arranged and arranged, even in heterogeneous events, while maintaining a constant relationship with others.

'River' and 'Flower' in the consciousness of the characters do not act as simple images in the narrative structure. They change the order of life of the protagonist and make a wrinkle on the individual. It builds



up a relationship again and the events are very different depending on the way of thinking. Born from the folds, "multiplexes" do not result in marginalization and marginalization, as one pushes the other.

Key Word : Feminism, Deleuze, Artisans, Wrinkles, Multiples

필자 소개

심영덕 : 경운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cdlm0808@naver.com

이 논문은 2020년 02월 1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

